

羊이 무리이뤄 살듯 다툼·갈등 사라지고

양떼들이 푸른 들판을 함께 하듯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갑오년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웠습니다.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

올미년 양의 해가 떠오릅니다. 새 희망의 태양으로 양이 무리를 지어 살아가듯 우리들도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 길 잃은 친구, 병든 자들의 고통을 우리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방편품을 통하여 우리 삶을 이와 같은 모양, 성질, 주제, 힘, 작용, 원인, 조건, 결과, 보답 하는 것들은 하나의 연기 작용으로 모두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연기법에 따라 상생하고 발전합니다.

기도는 불교의 무한한 가능성

총지중 총리원장 법등 정사



다사다망했던 갑오년이 지나가고, 희망 가득한 올미년 새해의 태양이 힘차게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365' 일 이라는 한 묶음의 선물과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과 복을 보람 있게 쓰고 살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연습이 성공을 만들 듯이 꾸준한 기도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며, 삶에 큰 힘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힘은 그냥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삶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에 희망을 주는 불교돼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의지가 돼야 할 불교계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 채 오히려 각종 범계문제로 국민적 망신을 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불교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행자(修行者)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선학원이 지난 해 11월 3일 제2정화운동을 선언한 것도 수행자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화합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삶이 수행자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수행자 정신을 높게 끝 주 세워 한국불교가 미래를 이끄는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참회없는 서원은 구업일 뿐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스님



올미년 새해 찬탄으로 맞이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참으로 빠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막상 부처님을 우러러 보면 내세울 것은 없고 모두것이 후회요 부끄러운 일들 뿐입니다. 참회가 없는 서원(각오)은 오히려 구업을 짓는 일입니다.

각자 서원이 있다면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 묻지 않고 순박했던 그 시절 그 마음이 수행자가 머물 자리입니다. 초발심자경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무명에 쌓인 중생들과 함께 우리 모두 그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지구상 구석구석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새해의 행복과 번창과 평안을 기원해 봅니다.

서로 돕고 인정넘치는 세상으로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올미년 새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습관들을 깨끗이 불사하고 더욱 돈독한 신심으로 원력을 다집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불국토 건설에 더욱 정진합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남을 위해 베풀고 말이 앞서기보다는 실천을 통하여 믿음을 주고 함께 동거동락하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자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있는 듯해도 없어요, 없는 듯해도 있음이라. 간 듯해도 머무름이요, 머문 듯해도 감일지니.

이 소식을 아는 자는 걸림이 없을 터이며, 소식을 모르는 자는 진흙탕에서 헤매는 것이다.

살기 위해 죽는 자며 죽기 위해 사는 자여! 아무쪼록 부처님의 광명을 등불삼아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지에 밝은 해는 오늘도 솟았건만 주인은 어디가고 객만 모여 아우성치네.

행복은 변화하니 집착 마시길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해안 스님



무시(無始)무종(無終)으로 흐르는 한량 없는 세월속에 흠뻑된 숙업과 업보에 끌려 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 합니다.

간밤 중천에 뜬 달은 동녘 햇살에 빛을 잃었고 창공은 일색(一色)인데 달가고 해지네. 대소사 시시비비가 많았던 甲午年 영원하지 못할 많고 큰 것 찾는데에 소일(消日)을 하였던 그릇된 일들일랑 다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하세. 명성은 높을수록 재물은 많을수록 근심걱정은 불어나는것. 올미년(乙未年) 새해에는 허망한 탐욕으로 대립과 투쟁을 버리고 양보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복되고 행복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양과 매와 기러기의 모습처럼

(사)대한불교선교종 종정 법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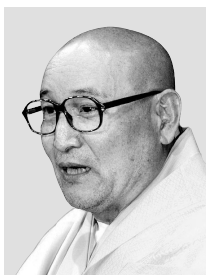


양의 해는 매와 기러기 해라고 상징적 금수(禽獸)로 표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양처럼 불교가 따뜻하고 포근하며, 부드럽고 가깝게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종교보다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위대한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지 않는, 전쟁과 기아와 질병이 없는, 삼독심을 여위면 마음, 마음의 심지(心地)가 불국토(佛國土)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관대함을 남에게도 베풀자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以愛妻子之心으로 事親則曲盡基孝요,
以保富貴之心으로 奉君則無往不忠이요,
以責人之心으로 責己則寡過요,
以恕己之心으로 恕人則全交나리.

처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섬긴다면 효도가 지극하다 할 것이고, 부귀를 보존하려는 애착된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다면 매사가 충성스러운 일이며, 남의 잘못을 말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허물이 적을 것이며, 자신에게 관대함을 남에게도 베풀 때 완전한 교제가 될 것이니, 부끄러운 말세에 부처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나가자.

바른 정도로 묵묵히 정진을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올미년 새해는 온 세계가 불국정도가 될 수 있도록 융맹정진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는 한 해가 됩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겪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탐욕과 그로인한 대립과 반목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합심하고 단합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실천은 하루생활의 바른 수행에 있습니다. 먼저 심지를 두텁게 하여 바른 정도로 묵묵히 정진해야 합니다. 생각이 바르면 정도가 솟아납니다.

허물 들추지 말고 자신 돌보자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不責人小過
不發人陰私
不念人舊惡

三者 可以養德하여
亦可以遠害하라

남의 작은 허물을 들추지 말고 남의 비밀을 폭로하지 말며 남의 지난 잘못을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가히 덕을 기르게 해줄 뿐 아니라, 또한 해를 멀리 해줄 것이니라. 선행 덕을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도록 정진해야 한다.

매일 10번 염불로 성불합시다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갑오년과 더불어 모든 어둠은 깨끗이 사라지고 밝은 마음으로 올미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처처불상이요 극락정토입니다. 이같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매일 십염(나무아미타불 10번) 염불하며 일년 내내 좋은날 되시고 다같이 성불합시다.

내가 맑고 깨끗하면 중생이 또한 맑고 깨끗한 것이요, 내가 마음이 흐리면 무엇이 홀리게 될 것인가 중생도 마음이 흐리면 무엇이 홀리게 될 것입니다. 바르게 입을 닦으면 크게 깨달으며 국운이 융창해지고 만백성이 다같이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총화의 법화가 이제 이곳에서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남정 스님



鸚鵡便是廣長設
山色豈非清淨身
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舉似人

물소리 곧 부처님의 말씀이요,
산 빛깔 역시 부처님의 몸이 아니겠는가.
어젯밤 팔만사천 계송을 어느 날 어떻게 손을 들어 이 사실을 알리리요! 총화의 법화가 이곳에 펼쳐졌으니 한마음으로 수행 정진하여라.

새해에는 모든 일이 원만구독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으로 동체대비 구현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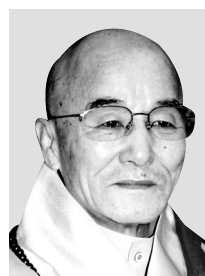


올미년 새해는 몸으로 진실한 행을 실천하고, 입으로 진리의 참 뜻을 전하며, 마음으로 부처의 보리심을 일으켜 선악 시비 선후 분말의 인과 이치를 깨달아 우리의 복과 지혜를 키우는 한해가 되길 서원합니다.

물질위주의 삭막한 현실 속에서 탐진치에 물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청정한 삶을 살아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불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 자신을 정화하고 그러한 정화를 바탕으로 사회를 정화하고 민족을 위해 나아가 온 인류를 선도하는 대승적인 참된 불자가 거듭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화합 상생하자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지나간 어두운 일들은 모두 잊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과 상생을 길로 힘차게 걸어갑시다.

十方同一會 各各學無爲
此是蓮佛處 心空及第歸

시방의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각기 하염없이 진리를 배우나니 이곳이 부처를 뵈는 도량이며 마음 비우고 급제하여 돌아가네.

행복을 중생에게 나누어 주길

(사)대불교조계종 종정 청해 스님



부처님 갑오년 가시는 길마다 중생들 괴롭고 고통스러운 짐 고이집어 들고 가시옵소서.

올미년 오시는 길마다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일 들고 오시옵소서.

가시고 오시는 길 항상 그 자리에 있건만 중생들은 가고 오심을 그쳐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비스러운 부처님, 행복하신 부처님, 즐거운신 부처님, 중생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시옵소서. 부처님 가고 오시는 길 모든 중생이 행복하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경험을 지혜로 잘 살리길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智者調身 弓工調角
水人調船 材匠調木
智者調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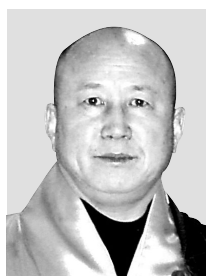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활만드는 사람은 활을 잘 다루며 물가에 사는 사람은 배를 잘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잘 다루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잘 다룬다.

그 소중한 경험들을 다시 잘 되살려서 새해에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2015년 새로운 한 해동안 멋진 행운의 한해를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불국토 만드는 불제자 됩시다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정대행 법장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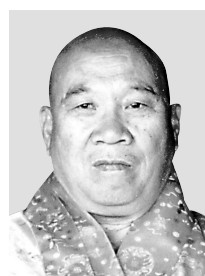


올미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고승대덕 사부대중께 고합니다. 불교의 진리는 생사해탈이 목적이며, 한마음 깨달음에 있다하니, 평등한 성품에는 너와 내가 없으며 커다란 거울에는 대소분별 없습니다.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는것 참공부라 하시니 이 마음 칼날 세워 대한민국 불교통일 단결하여 이 땅에 부처님나라 불국토 운동을 전파하는 불제자가 됩시다. 가는길에 융맹한 사자처럼 곳곳마다 일어나서 다함께 호국불교 일으키는 포교대사 서원합니다.

나무불 대방광불화엄경. 나무뭉치 보법연화경. 나무승 아미타경

인내로 정진하면 무근수 꽃피리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은 스님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듯이 아무리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정진하면 무봉탑(無縫塔)에 등불이 환하고 무근수(無根樹)에 꽃이 피리라. 어떠한 새해에 마땅히 할 일인가. 나무 닦 한소리에 꽃이 스스로 붉구나. 아집과 편견으로 얼룩진 지난 한해의 어두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화해와 용서로써 화목하여 풍요와 진실이 넘치는 세상을 이루어 봅시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편견과 아만, 정쟁을 멈추고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화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양보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청정 불사가 원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흐르네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스님



부처님의 바람을 한 번 일으킬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고, 부처님의 바람이 한 번 고요할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네. 먹구름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며 망망한 바다에 큰 파도가 일듯이 부처님의 불법의 하늘과 바다. 임제종에 넘쳐 흐른다.

부처님 법에 따라한다면 모든 일이 무사행통할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짓지않는 한해가 됩시다. 신년 올미년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화합과 나눔이 시방세계에 널리 퍼지길

신령스런 산하대지, 국운 빛나네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스님

真心法語 頓悟真心



신령스런 새해가 밝아오니 육도가 모두 한꺼번에 사라지고 남산은 푸르고 한강은 유유히 흐른다. 온대지가 하나의 가람이구나. 상락아정(常樂我淨)이로다.

본성이 곧 법신(法身)임을 깨달으며 본래생함이 없거늘 의탁할 곳은 있었는가. 신령스럽게 밝아 어둠이 없고 항상 분명히 알면 어디서 온 곳도 없고 어디서 갈 곳도 없다. 산하대지(山河大地)가 일천광국(一千光國)이로다. 산하대지가 신령스러워 국운이 빛나이로다. 새해에는 청정심을 되찾아 자신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기운이 모두 융성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참회하십시오

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스님



마음에 죄의 인연 없애려 하면 성품 가운데 참으로 참회 하십시오. 배움에 항상 자상 관하면 즉시 부처님과 한 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법신을 찾고자 하면 법신을 떠나서 마음 씻으면 노력하고 살피며 노닐지 마세요. 뒤 생각 끊어지면 한 세상 쉬리라. 이 계승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돈오 할 것입니다. 갑오년을 보내고 을미년이 밝아옵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고 바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은 참고 하면 일제 모든 것을 새로운 각오로서 대처하고 단결하여 나아가면 오는 앞날에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자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스님



중생은 부처가 아니므로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는 법입니다. 갑오년 묵은 해의 허물을 훌훌 털어버리고 을미년 새해 깨달아 고쳐 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한해를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 허물을 낮고 같이 밝게 보는 불자가 되어서 남의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임을 알고 먼저 체가 되는 내 허물을 고치어 그 그림자도 자연히 바르게 되도록 정진 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삶의 텃밭에서 나의 위대한 가치와 능력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고 전념하여 수행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새 생명을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스님



금년 을미년은 그 함찬 기운으로 불자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 되어 웅대한 희망과 포부를 마음껏 펼치는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미혹하고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지혜로운 불자라면 오직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바르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중생들이 번뇌로 혼란에 빠지고 병에 들어 헤매 때 부처님께서는 이를 치유하게 하는 약을 주셔도 중생들은 믿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알고 유언으로 방편을 쓰고 중생들로 하여금 이 영약을 먹게 하셨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영약으로 새 생명을 얻고 바르게 정진해 갑시다.

공부합시다. 정진합시다.

(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스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덧 없는 불꽃이 온 세계를 살라버린다' 하시고 또 '중생들 고통의 불이 사면에서 함께 불타오르고 있다' 하시니 수도인은 마땅히 스스로 깨우쳐 머리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요즘 일어나는 사회 부조리 현상들은 오게 실천 운동으로 정화합시다. 우리 국민이 부처님을 믿어가고 염불을 외어가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노래가라미 없어지고 흥이 없어졌습니다. 백년의 꿈을 깨고 오늘 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공부합시다. 참진합시다. 염불합시다. 정진합시다.

스스로 높다고 뽐내지 말라

(사)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몽 스님

신몽 스님



霜松潔操하고 水月虛襟이니라. 서리내린 소나무와 같은 맑은 지조와 물에 비친 달과 같은 텅빈 마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 하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이나 경구를 세기다 보면 어느 듯 볼 눈 녹듯이 사라져 갑니다.

自不屈 自不高, 바로 선가관감과 있는 문장입니다. 스스로 높다고 뽐내지 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대 성인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작은 실천 쌓여 큰 일 이루길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水水靑水 靑靑水靑 靑山流水 刮目來 世上永遠 老不老

물은 물이되 푸른 물이요, 푸르고 푸른데 물이 푸름이로다. 앞 뒤 흐르는 물 눈을 부릅뜨고 보니 세상은 영원하고 늙으면서 아니 늙네. 산속 조그만 개울물이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듯이 을미년에는 새해 결심한 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큰 일을 이루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참회의 새 마음으로 새 해를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스님

무공 스님



갑오년을 보내고 을미년 새해를 맞습니다. 본래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 새해나 지난해나 다를 바 없으나 세간사에 있어서는 지난날을 돌이켜 참회하고 새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새해 새날아침 참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마음속의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 바른 정진으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됨을 바로 알고 세상 모든 존재와 또 나 자신과 화합해 가도록 합시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기 자리를 찾아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속에 반야종지를 심자

(사)전국사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장 무산 스님



희망찬 새해를 맞아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의 의지를 세우고 위없는 불도를 구하는 불보살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글에만 집착하지 말고 곧 바로 본 뜻을 알아서 낱말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근본 종지에 부합한다면 스승 없는 지혜가 자연히 나타나고 친진한 진리가 또렷하여 뛰어난 끈기를 지닌 선지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방만한 생각, 탐욕에 집착지 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공부에 정진합시다.

마음이 소멸되면 참 진여 이뤄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지명 스님



光明寂照遍河沙 凡聖含靈共我家 一念不生全體現 六根 動被雲遮

고요히 방석 위에 앉아 좌선에 몰두하니 지혜의 빛이 온누리 가득하니 번뇌와 성현은 차별이 없어져 평등한 세상이 열려 지드라. 한 생각 분별하고 차별심이 사라지면 부처의 도리가 나타날 지니, 번뇌와 망상하는 마음만 소멸되면, 참 진여를 이루어 성불한다고 하였습니다. 희망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나를 버리고 열반 증득을

세계승가회 회장 수완나 스님

수완나 스님



若知我空 無毀我者이요 有我說法 我未斷故니라

중생이 분노를 일으키는 탐욕이 크기 때문이며 탐욕이 일어남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기 때문이니라. 이 어리석음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나' 라고 하는 아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있느니라. 중생이 생사를 해탈하지 못한 나를 좋아하는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 내가 없음을 안다면 나를 훼손할 일도 없느니라. 내가 있어 법을 살하는 것도 아직 나를 끊지 않았음이니, 새해에는 모두 나를 버려, 자성정정으로 보리열반을 증득하시라.

어려운 이웃 살피는 참된 회향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성인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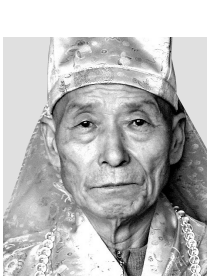


을미년 새해 새날아침을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함께 합니다. 떠오르는 밝은 태양처럼 우리 불자들은 환골탈태의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 한번 잘 쓰면 부귀영화가 따로 필요없습니다. 오직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의 세계요 불국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잘 사용하여 어떤 마구니라도 물리칠 수 있도록 참다운 법을 굴러서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성불합시다. 2015년에는 남의 허물을 탓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참된 회향을 준비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진치 훌훌 버려라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衆善奉行是好日 行作惡業常凶日 悉願成就多福年 착한 일을 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날마다 흉한 날이 될 것이다.

바라는 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해가 되소서. 신구의 삼업 버리고 또 버리니 청정한 마음이니, 신년에도 탐진치 아무든 마음 헐릴 버려라. 밝은 한해도 맑은 바람, 고요한 이 마음이 모든 지혜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농아버림으로 청정심 되찾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엄 스님



삼천대전세계의 유정과 무정의 중생들이 다함께 눈물을 흘렸던 묵은 해의 고통을 쉽게 잊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울음을 거둘 때입니다. 사바세계를 고해라 했습니다. 그 첫째 덕목으로 부처님께서 '보시를 행하라(행어보시)' 고 했습니다. 보시란 '농아버림(농하)'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건강한 삶이 영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성과 계합하면 고통서 벗어나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스님

정관 스님



을미년 새해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양은 운순하고 순박합니다. 이렇듯 을미년에 낱개는 지구촌에서 가깝게는 가정, 개인에 이르기 까지 갈등과 반목이 없는 평안한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서 실재를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고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불성만이 진정한 본체(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과 불성이 계합한다면 이 사바세계의 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변함 없이 정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살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해봉 스님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좌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생각하고, 가난해도 편안히 머물러 도(道)를 지켜,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할 것을 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중생은 부처가 아니므로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 고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겨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마음 비워서 자유스러운 삶을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을미년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밝은 새해 태양빛 같이 본래 청정한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밧줄도 없는데 스스로 묶고 온갖 고통을 다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밖으로 끈달라기 때문이죠. 물에 비친달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번뇌가 모든 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이 청정한 불성을 우리들도 찾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비워서 항상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생활 할 때만이 피안의 불국토에 이를 것입니다.

아집과 집착을 버립시다

한국불교원효종단 개산대법주

마정 스님



을미년 새해 불자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생과 원생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집과 집착에 물든 나는 가짜 나이며, 생명이 있으니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내 속에 있는 불성만이 영원한 나, 자유로운 나이다라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셨습니다. 내 안의 불성을 찾아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일요. 부처님께서는 한 무더기의 땀에 절을 하셨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생에 내 부모 아님이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은 모습은 다르나 모두 다 한 가족이었으니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웁으니 그르니 싸우지 맙시다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스님



웁으니 그르니 싸우지 맙시다. 웁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피하지 말며 끝까지 옳다거나 그르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웁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함도 안되니, 그 자리에서 한 마디를 일러 보겨라.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지우고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주나 한 마음으로 염불하여 억겁의 업장이 소멸되니 제불보살 찬탄하고 육도중생 출을 추네.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 찾자

종교세계신문사 발행인 윤기순

윤기순



을미년의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묵은 해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도 모두 던져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희망찬 한해를 시작합니다.

삼천대전세계의 유정과 무정의 중생들이 다함께 눈물을 흘렸던 묵은 해의 고통을 쉽게 잊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울음을 거둘 때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기원을 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보시를 행하라(行於希施)' 고 했습니다. 보시란 '농아버림(放下)'입니다. 새해에는 보시를 통해 본래청정한 우리의 마음을 찾기를 기원합니다.